

“행위를 살펴보아라!!!”

학개서 1:1-11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본적이 있나요 ?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다면 ?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한다면 어떨까요?

A. 누가/ 누구에게

1절 - 다리오 왕 제 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누가 이 편지를 ? - (‘ ’)입니다.

학개서가 쓰인 시기와 누가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인지를 소개
이것은 학개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고급 힌트를 제공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중 학개의 마음과 입을 빌려서 말씀 하십니다. 학개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문은 이름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주석이나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것으로 약간은 추리 할 수 있습니다.

학개의 이름의 뜻, 히브리어 חַגַּי (Haggay) → “절기의 사람”, “축제에 속한 자”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기에 절기와 관련된 날에 태어났거나, 절기 (특히 초막절)와 연관된 사명을 가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학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 학개는 이 어렵고 중대하고 부담되는 말씀을
그대로 더 하거나 빼는 일 없이 전합니다. ✿

B. 시기와 특징은 ? (1절) - "다리오 왕 제 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 다리오 왕 통치 2년, 6월 1일
- 다리오 왕이 주전 522- 486년
- 다리오 왕 2년은 BC 522 년이 됩니다.
-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18년

1차	538	스룹바벨, 여호수아	성전 재건 (공사 중단)
2차	458	에스라	율법 교육, 신앙 개혁
3차	445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연도와 왕의 이름은 다음의 4가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 ① 다윗 왕조가 사라져서 히브리인의 연도를 사용하지 못함(하나님의 심판)
- ② 유다가 정치적으로는 바사제국의 지배하에 있음
- ③ 하나님의 말씀이 제국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됨
- ④ 성전 재건의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보여줌.

C. 학개의 예언의 대상은 ?

- 두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1)
- 1차 귀환자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공동체(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들)

D. 왜? 기록 !!

- 성전을 재건을 촉구하기 위하여
-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질문

- ✓ 도대체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 ✓ 학개는 유대인들을 아주 매몰차게 책망하고 격려하는가?

2-6절까지 기록한다.

1. 아직까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다.(3)
2. 자신의 집짓기 바빴다.(4)
3. 결과가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았다.(5-11)
4. 구멍 난 항아리에 계속하여 물을 부음. 채울 수(만족, 결핍, 부족함등) 없었다.

☞☞☞하나님이 하신일

- 불어 버렸다.
- 이슬이 그쳤다.
- 땅은 산물을 그쳤다.
- 가뭄이 들게 하였다.

(땅의 모든 소산 / 동물과 사람 수고하는 모든 일 에 피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고 왜 이런지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개서의 처방은

-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